**혼묘지 절**

혼묘지 절은 구마모토시 서부 지역의 산에 위치한 일련종(日蓮宗)의 사원입니다. 1585년, 구마모토번의 초대 번주였던 가토 기요마사(1562-1611)가 아버지인 가토 기요타다(1526-1564)의 추선(사자의 명복을 빌고자 선한 일을 수행하여 죽은 사람의 악업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을 위해 오사카에 건립한 것이 시초입니다. 이후 기요마사는 사원을 구마모토성 내부로 이전하였으며, 기요마사 사후인 1616년에는 지금의 위치로 재이전하였습니다.

경내 입구에 해당하는 니오몬 문은 1920년, 당시 일본에서는 드물게도 신소재인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지어졌습니다. 니오몬 문을 지나면 긴 돌바닥으로 이루어진 참배길이 이어져 있으며 길 너머에 혼묘지 절이 위치해 있습니다. 건립 당시의 본당은 1877년에 발발한 세이난 전쟁으로 인해 소실되었으며, 오늘날의 본당은 1884년에 지어진 것입니다. 경내에 조성된 참배길을 따라 양옆으로 배치된 사원의 건물들은 혼묘지 절의 본당보다 오래된 것이 많습니다.

혼묘지 절에서 가토 기요마사의 묘지까지 산을 오르는 돌계단은 무나쓰키간기(가슴을 찌르는 듯한 괴로움을 느끼는 가파른 돌계단)라는 어딘가 가슴을 묵직하게 만드는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중간에는 약 400~500개의 석등롱이 줄지어 있으며 좌우 양옆으로 176단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른 후 오른쪽을 바라보면 중문 바로 앞에 기초 부분을 나무 외벽재로 씌운 거대한 종야등이 세워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마모토성의 천수각에서도 절이 잘 보이도록 밤새 불을 켜 놓았습니다.

돌계단을 올라 문을 지나면 돌바닥으로 이루어진 안뜰을 볼 수 있으며 안쪽에는 배례를 올리는 하이덴(拜殿)과 신을 모시는 혼덴(本殿)으로 구성된 묘소가 있습니다. 혼덴에는 가토 기요마사의 묘와 함께 기요마사가 죽음을 맞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두 충신의 묘가 있습니다. 혼덴은 메이지 시대(1868-1912) 초기에 지어졌으나, 하이덴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재건되었습니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면서 정부가 불교의 사원과 신사 분리를 강제함에 따라 신격화된 가토 기요마사의 묘는 당시 구마모토성 안에 있던 가토 신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혼덴의 꼭대기 부분이 구마모토성에 있는 2개의 천수각 중 큰 천수각과 같은 높이로 지어졌다는 점에서 묘소가 구마모토성을 의식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산 안쪽으로 300개의 돌계단을 올라가면 1960년에 건립된 가토 기요마사 동상을 볼 수 있습니다. 동상은 나가사키 평화공원의 평화기념동상을 설계한 조각가 기타무라 세이보(1884-1987)의 작품입니다.